

경제

지역 기업경기 2년7개월만에 최악

제조업 업황지수 5개월 연속 하락...경기전망도 우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제조업체들이 극도로 움츠러들고 있다. 지역 기업 경기가 5개월 연속 하락하며 2년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역 기업들은 앞으로도 수출은 물론 내수 판매, 신규 수주가 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봐 경기부진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매출액 20억원 이상 광주·전남지역 기업 448개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2011년 9월 광주·전남 지역 광공업 생산 동향'에 따르면 9월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보다 1.0% 증가했다.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 소폭 증가

9월 중 광주·전남 지역의 광공업 생산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9월 광주·전남 지역 광공업 생산 동향'에 따르면 9월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보다 1.0% 증가했다.

개월 연속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50) 이후 2년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11월 업황전망BSI도 74로 전달보다 11포인트 급락했다. 업황전망BSI는 지난 5월(101)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제조업의 10월 매출BSI는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한 반면, 생산과 신규수주 BSI는 각각 2포인트와 5포인트 하락했다. 11월 전망은 수출(97→90), 내수(94→87), 생산(101→97), 신규수주(97→89) 모두 크게 떨어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비제조업의 10월 매출BSI는 86, 채산성BSI는 84로 전달보다 각각 4포인트와 3포인트 하락했고, 11월 매출

전망BSI와 채산성전망BSI도 각각 9포인트와 6포인트 내려갔다.

제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19.9%), 불확실한 경제상황(15.0%), 내수부진(13.7%), 환율(11.8%),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6.9%), 경쟁심화(6.0%)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같은 경기 둔화 우려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중소기업회 광주전남본부가 중소기업 107개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2011년 1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88.5로 전달보다 4.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국내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 유럽발 재정위기의 실물경제 확산, 비상수기 업종 등에 따른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월 경기변동 항목별 전망 SBHI는 생산(92.1→89.9), 내수(88.1→86.6), 수출(94.5→88.5), 경상이익(84.2→83.3), 자금사정(89.6→85.9), 원자재 조달사정(96.5→93.6)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달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설비수준(101.0→104.3), 제품재고수준(102.0→102.9) 등은 전달보다 상승하며 기준치(100)를 넘어섬에 따라 설비와 과잉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용수준(93.6→88.4)은 전달보다 크게 하락해 고용난이 심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기아차, 차체부품 협력사 상생세미나

현대·기아자동차는 31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롤링힐스에서 생산기술·품질·구매부문 주요 관계자들과 1차 협력사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체 협력사 품질향상 상생세미나'를 개최했다. 신중은 현대차 부회장이(앞줄 왼쪽 세 번째)와 1차 협력사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차체 품질 향상을 위한 결의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용 많이하면 과세...일자리 정책 역행

50인 이상 기업에 종업원 소득세 부과...지역기업 10년새 180억 증가

광주상의, 정부에 완화 건의

광주상공회의소는 31일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제 기준과 부과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등 37개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 지난 1977년부터 시행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부과하는 제다.

38.7% 증가했고 부과액은 6853억원으로 149.2% 증가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부과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지난 1999년 54억원(4536개사)에서 2009년 122억원(5700개사)으로 각각 124.8% 증가했다. 전남은 같은 기간 78억원(5068개사)에서 188억원(7146개사)으로 140% 급증했다. 10년새 지역기업의 세금부담은 180여억원 늘어난 것이다.

과되는 역효과가 일어나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50명 안팎을 고용한 중소기업에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신규 채용을 꺼리거나 월급을 주되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임시적인 고용형태를 동원하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상의의 이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제 기준을 현재의 '5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기준을 현행 '전체 인력 급여'에서 '100인 초과인력 급여'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2009년 기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과업체는 27만6661개사로 1999년과 비교해

광주상의는 이처럼 중소기업이 인력을 고용하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부과로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부

중소기업 이직률 18%...대기업의 2배

취업포털 사람인은 국내 기업 54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이직률의 최근 1년간 평균 이직률은 18.0%로 대기업(10.9%)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 직원들은 이직 이유로 '연봉 불만족'(2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업무 불만족'(18.0%), '기업 문화 부적응'(9.8%), '동료와 불화'(6.3%) 등의 답변이 나왔다. 대기업

직원들은 '업무 불만족'(30.8%), '복리후생 불만족'(7.7%), '타사의 스카우트'(7.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직 시기로는 1년차에 일터를 옮긴다는 답변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1년~2년(24.0%), 2년~3년(14.3%) 등의 순이었다. 이직이 가장 많았던 업무 분야는 생산기술직(30.9%)이었으며, 영업관리(18.4%)나 판매·서비스(6.6%) 등에서도 이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S&P, POSCO 신용등급 A-로 강등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POSCO의 장기기업 신용등급과 채권등급을 A에서 A-로 강등했다. 등급 전망은 부정적이다.

S&P는 앞으로 1년간 POSCO의 재무건전성이 계속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해 등급을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S&P는 "POSCO의 3분기 영업실적은 기대치를 밑돌았으며 철강수요 둔화와 경쟁심화로 앞으로 1년간 POSCO의 영업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수요 둔화와 취약해진 시장지위로 인한 영업실적 악화전망을 고려할 때

POSCO는 등급 하향조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 1,909.03 (-20.45)
코스닥지수	▲ 490.69 (+0.10)
금리 (국고채 3년)	▼ 3.53% (-0.01)
원·달러 환율	▲ 1,110.00원 (+5.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잘 나가는' 현대기아차 中 소형차 시장 2위

현대기아차가 올해 중국 소형차(C1 세그먼트)시장에서 작년 대비 50% 넘게 실적이 증가하면서 판매 2위에 도약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9월까지 중국 소형차 시장에서 총 16만2472대를 팔아 폴스바겐(15만4582대)을 제치고 GM(19만1626대)에 이어 판매 2위에 올랐다.

점유율을 보면 GM이 12.9%로 가장 높고 현대기아차(10.9%), 폴스바겐(10.4%)이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현대기아차의 중국 소형차 판매 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2.2% 늘어난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소형차 판매 실적이 중국형 엑센트인 현대차 베르나가 견인했다. /*연합뉴스

현대차 중고차 가격보장 확대

현대자동차는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고차 가격 보장 서비스'의 대상 차종과 보장유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차는 11월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1년간 서비스의 적용 대상 차종을 10개 차종으로 확대하고, 기존 보장유도 보유 기간별로 5% 포인트씩 높이기도 했다.

대상 적용 차종은 엑센트, 아반떼, 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 그랜저, 투싼, 란타게, 베라크루즈, 포터, 스타렉스 등이다. /*연합뉴스



LG전자가 세계 최대 양문형 냉장고를 출시
LG전자가 세계 최대 용량인 870ℓ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를 다음 달 중순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 850ℓ 양문형 냉장고와 폭, 높이는 같지만, 내부 선반 두께 조절 등을 통해 저장 공간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함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굴마음 서석동 동구청 서석문앞 사계절 굴 요리 전문점 ☎(062)266-9119	촌추관 동구 남동 33번지 새마을금고옆 생고기, 숯불구이 전문점 각종모임 단체환영 대표 김복희 ☎(062)228-3389	나는포차다(뽕강) 우산동 80M도로변 농수산유동공사 건너편 삼성빌딩층 수산물 포장마차 ☎(062)962-0038	경희수한방병원 학동 전대병원 응급실 건너 한·양방합진병원, 각종 보험 상담 교통사고 의료보험지정병원 원장 최수광 ☎(062)236-1058	월출도시 백마장군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청근처 병점, 사주, 궁합, 부지 등으로 봐드립니다. 대표 허길배 ☎(062)527-2008	청학역리철학원 월산4동 1048-56번지 사주, 관상, 신수, 궁합, 택일, 자명, 개명 지족 김기중 ☎(010)8903-8113	왕대박삼순이네 월산5동 1050-23 신우아파트건너골목 이구찌, 화우침, 낙지볶음, 연포탕 백반 : 오전12시~오후2시 대표 최상주 ☎(062)434-9299
세브란스의원 남구 월산동 1053-5번지 구정재현내과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입원실운영 ☎(062)352-5757	고향집 우산동 554-37 무등장레스토랑옆 생태탕, 장어탕, 삼겹살탕 대표 조순덕 ☎(062)522-1118	다락정 신안동 149-1번지 광주역 건너 아구탕·찜, 대구탕, 복탕, 복지리 대표 전숙자 ☎(062)522-4978	박기네등개랑꿩이랑죽색생면갈국수 화정4동 동사무소옆 들깨랑, 바지락갈국수, 팔죽, 메생이, 해물전 대표 박종수 ☎(062)374-5552	유한회사TSC 중흥동 658-21번지 2층 법인경매 전문법인회사로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찬승 무로상담☎(010)8033-0114	한라IT 임동 오거리에서 전대사거리쪽 50M지점 PC사업부, 가사사업부, 인테리어사업부 CCTV도매유통설치, 종교PC, LCD, 유통사업부 www.hallait.net ☎(062)526-3696	황제관광여행사 두암동 859-9번지 2층 국·내외 해외여행 여권, 비자, 신혼, 수학여행등 대표 문병구 ☎(062)267-8580
동해공인중개사 광산구 장덕동 1276번지 동산·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전문 ☎(062)528-1544	사단법인한국불교극조계종미륵사 북구 우산동 264-17번지 전화로 수백을 찾을수 있습니다. 대산소 수액처방 영기전도, 49체, 데마, 영으로 보는 사주 주지영월 합장·법사해조 합장· ☎(011)649-5552	광주최고의 종로검정고시학원 대의동 7-4 전일빌딩뒤 문화전당비로엃 성년한글반, 오전오전 이진반 검정고시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원장 이재은 ☎(062)226-2227	무진보 동구 금남로2가 7-3 구동구청후문 오리요리명가 ☎(062)523-5292	목화웨딩 동구 불로동 169-1 히딩크호텔입구 웨딩그룹목화, 스마트웨딩 웨딩미디어, 웨딩컨설팅 대표 이현희 ☎(062)232-3636	온누리헤어 동구 불로동 153-1 히딩크호텔뒤 블임머리, 파마, 컷트전문 대표 심은영 ☎(062)223-3777	Siver Holic 동구 광산동 구시청 사거리 실버커플링·이어링 ☎(062)222-0144